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코로나19가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앗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300명(지역 273/비례 47)을 선출하는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로, 여성계 역시 동 제도가 여성대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지대하다. 여성계를 대표하는 두 수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을 방문하여 전망을 들어보았다. 면담은 2월 25일과 2월 28일에 각각 이루어졌으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면담 중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우)과 이진옥 대표(좌)

사회 이번 탐방은 한국여성운동의 두 대표적 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이 된 만큼 지금의 여성운동과 여성 정치 참여의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질문은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이후 들불처럼 일어난 페미니즘운동, 이후 미투운동 등 여러 사건들이 있는 후에 맞이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여성운동 물결이 한국단체협의회(이하 여협)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되고 있는지요?

회장 우리는 작년에 시작된 미투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국 미투지원본부를 만들었어요. 지방에 여성단체가 있으니깐 같이 협력해서 전국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서울과 지방이 협력해서 미투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것으로 했어요. 또 남자들이 미투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요청하면 받아주느냐고 해서 남녀구별 없이 문을 열어놓았어요. 실제 남성상담 건수는 없었지만요.

사회 한국사회에 미투가 미친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회장 과거에는 여자 몸을 만지고 툭툭 치는 것을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행동했죠. 항의하면 격려했다 하면서 마음 편하면서 빠져나갔죠. 미투운동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국민적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지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미투 이후에 남자들이 잘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술좌석에는 여자 직원을 동석하지 않는다는지..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나라의 술문화에 과음문화가 있는데, 과음문화가 미투사건을 부추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음문화를 자제해야 되겠고, 우리는 기독교여성절제회에서 음주문화를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금주금연운동인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 회장님께서 정개특위 자문위원으로 여성 대표성이 정치개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신 바에 대해서는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선거제도개편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역구 할당제도 안되고 비례대표 의석도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제도의 변화가 여성대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회장 제가 정개특위자문위원으로 있었는데, 당지도부 남성들이 여성대표성 확대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봤어요. 정개특위에서는 소수정당도 의석을 가질 수 있게 해 양대 정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갖는 것을 지양하자는 데 방향이 맞춰져 가지고..

당시에 저는,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정개특위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거기다가 여성대표성 확대를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정치개혁 건의서에 여성정치참여 확대가 들어갔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야지만 정치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걸 확고하게 믿고 나가는데, 이걸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이 될려면,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여성대표성인데,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생각 차이가 크다는 걸 체험 했어요. 그 다음 회의에 ‘여성, 청년, 장애인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한 줄이 들어갔어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 곳에 전문가들도 있고 경험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여성대표성에 대해서 그 정도였어요. 그 한 줄이 들어간 우리 권고문이 나갔지만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는 여성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도 없었어요, 의원수를 늘이지 못하니까 300석에서 비례를 45로 하느냐 75로 하느냐 그냥 그런 소리들만 오갔었고, 양대 당이 화합이 안되니까 그냥 합의를 위한 어떤 전격적인, 이해하기도 어려운 선거 제도로 가버린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준연동형이라는 건, 소통이 안 되면 그렇게 전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여성들과의 소통이 없이 전격적으로 준연동형 제도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 저희는 섭섭하죠.

사회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과로 봤을 때 새로운 선거제도가 여성 대표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회장 ♣ 20대 때 지역구가 비례보다 1명 더 많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발전적으로 보자면 여성 지역구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야말로 올바른 경선을 하고, 당에서 공정하게 공천심사를 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성 의석수는 늘어납니다. 저희 회원단체인 21세기여성정치연합에서 조사를 했어요. 지난 지방자치단체 선거때 ‘여성후보와 남성 후보에게 차이를 두겠느냐?’는 질문에 ‘안두겠다’가 훨씬 많았어요.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점은 국민들이 이제는 여성을 청렴하다 점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남성 국회의원들보다 여성이 훨씬 낫죠’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선거제도가 바뀌면 누가 불리하냐?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로스쿨 예로 보면, 시대가 지나면서 여성변호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능력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성변호사의 로펌 취업이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 새로운 로스쿨 변호사 시험제도에서는 실력으로 하면 여성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에서는 성적순위가 다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로펌에서도 채용할 때 이 성적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성적 공개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지요? 실력이 아니라 편견이 좌우하게 돼요. 변호사 시험 순위는 모르지만 로스쿨 전문대학원 성적이 오는데, 그 성적은 각각의 로스쿨 성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느 로스쿨이냐를 보고 채용하게 되었으니 이는 대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직도 로펌이 여성변호사보다 남성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펌에서는 야간근무나 밤샘근무가 많은데 여성들이 그것에 약하고 결혼하면 그런 고된 근무를 견디질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남성을 더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제도로 바뀌면서 저는 그것을 우려했어요. 정개특위에서 여성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강하게 건의해도 국회에 가서는 법안에 반영될까 말까인데, 정개특위에서조차 여성대표성 강화는 미온적이었거든요. 이번 선거제도 변화로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도 우리 여성들한테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 및 선거에서 코로나19 변수도 무시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인 여성후보들이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선거운동을 못하고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도 적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성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코로나로 인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것이고...

하지만 사회 각 곳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미 사법시험 합격자도 많아졌고, 외교관, 판사, 검사, 여성공무원도 증가했으며, 여성사업가, 여성직장인의 활동도 커졌으므로 여성후보들이 약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난관을 타파하고 눈에 띄게는 아닐지라도 20대 총선보다는 여성들이 약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당 대표들은 그래도 국민, 여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눈치라는 것이 뭐냐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 당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당대표라든지 공관위원이라든지 공심위원들이 힘을 가지고 당의 원칙대로 공정하게 심사하고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면, 여성들이 공천도 많이 받고, 일단 후보로 나가면 국민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중진 여성의원원은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요.

회장  지금 물귀신 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당의 남성 중진의원들은 그 수가 많고 오랜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용퇴하고 후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여성 중진의원들의 입장은 달리 보아야 합니다. 가까스로 중진자리까지 올라간 여성의원들은 소수입니다. 이들 여성 중진들은 여성대표성 확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까지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중진 여성의원으로서 여성대표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여성 중진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맞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균열의 축이 그 전엔 지역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세대 간의 차이, 예컨대 나이 드신 여성들과 젊은 여성들 사이에 단절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니다.

회장 ♣ 사회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세대간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사회현상에서 조금 멀어질 수가 있어요. 과거 60, 70, 80년대에는 민주시민교육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여성센터 같은 데에서도 민주시민강좌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취미강좌나 취업강좌라 등 기술적 강의만 있지 굳건한 민주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 좀 약해졌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강좌를 각 곳에서 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요즘은 나이드신 사람도 유튜브와 친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강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짜 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시민들도 전국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전국에 여성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 ♣ 21대 총선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여성의 약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셨는데, 여성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의제 3가지를 택하신다면 무엇일까요?

회장 ♣ 저는 여성 일자리가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대표성이 강화되려면 여성들이 경제력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입법이라든가 정책에서 여성에 좀더 초점을 맞춘 여성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진행할 때 과학기술발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WEF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도 '제4차산업혁명' 저서에서 지적하듯이 산업기술 발전에 따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은 뻔한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 속에서 여성과 청년과 노인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가를 놓고 창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일자리 창출하고는 아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학기술발전이 전제가 되는 속에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국가경제위기를 염려하게 되었는데, IT가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이 되면서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일자리 기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만 하지 말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교육을 시킨다든지, 코로나19를 계기로 불운으로만 생각하지만 말고 대대적으로 IT세계로 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해요.

두번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잖아요. 제가 그 위원회에 위원입니다. 여성폭력방지에 있어서 힘을 모아야하는 데 특히 여성 1인 가구 안전에 예산과 인적 인프라가 투입이 되어야 해요. 1인 가구가 서울에 더 많잖아요? 그러므로 서울시부터 더욱 강력하게 1인 가구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관련해서 과거보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디지털 여성폭력을 1인 가구 여성에게 여러 가지 협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예컨대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핸드폰의 단추를 누르면 경찰서에 연락이 되어 즉각적으로 경찰이 올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의 비상벨을 누르면 그 근처 20m 안에서 그 벨소리가 크게 울린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쉽게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고, 모두가 핸드폰을 쓰는 세상에서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나 경찰청이 이러한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보호안전방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가 좋을 때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찍었다가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이를 유포하는 범죄 문제 말입니다. 그것은 범죄이고 어마어마한 성폭력 사건이라구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러한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경찰청도 검찰도 법무부도 여성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폭력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들이 나서서, 아주 대대적으로 예방책과 엄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성폭력 동영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보통 범죄하곤 틀려요. 사람을 죽게 만들잖아요.

문제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엄벌 인식이 강해야 됩니다. 비동의간음죄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미투 같이 의식이 바뀔 겁니다. 동의를 했을 때의 관계와 그 뒤에 동의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이 아주 다른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를 한다든가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폭행, 협박은 없었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성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엄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가 급선무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고, 그 방지위원회가 생겨서 다행이고, 그

리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적극 환영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예산이 적어서 애써봤자 잘 안돼요. 대통령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이 얼마나 위험에 봉착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기의 딸, 아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펄펄 뛰고 엄벌을 요구하지만, 일반 국민들 인식은 약합니다. 이것도 여성폭력방지 시민교육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여성 대표성 강화입니다. 여성이 능력을 갖춰서 대표가 되고 임원이 되는 문제.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남녀동수 문제는 청와대 헌법 개정안에 못들어 갔습니다. 적극적 조치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가발전을 생각해야 되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조차도 만들지 못했다는 이 국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대통령은 안이라도 만들어져 있어요. 단지 남녀동수가 안 들어가고 적극적 조치만 들어갔지요. 이것은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전에 우리 여성들 여러 단체들 앞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디가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시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대통령님은 여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정책을 편다면 실마리가 풀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회 위 의 과제가 21대 국회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회장 저희는 대표성 강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헌법 개정활동, 공직선거법 개정을 할 거예요. 올 1월달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2020 총선 관련 2가지 건의사항’을 보냈어요. ‘하나는 여성후보자를 위한 전략공천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두 정당에서 동일지역구에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서 건의했고요. ‘다른 하나는 당선가능한 지역에 여성후보자를 많이 공천해 달라’는 거였어요. 여성 대표성 증가를 위해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의 뜻을 모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든가, 인터넷상의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놓으라 할 것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여튼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것에 창업지원 정책을 편다면... 여성, 노인들한테 인터넷 구매교육을 시킨다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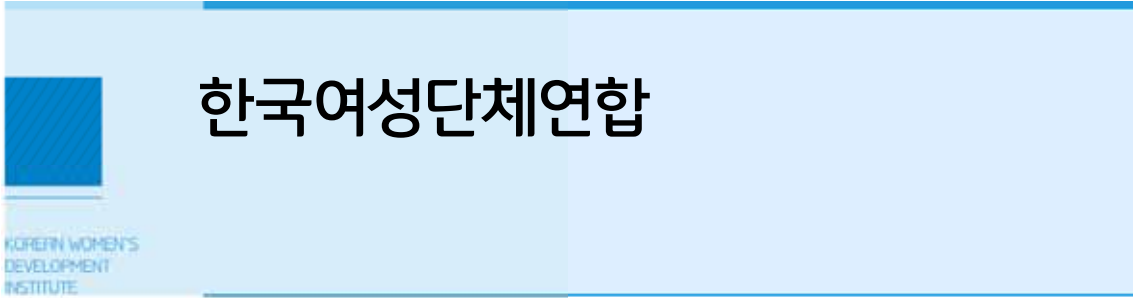
사회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운동이며 정책에 대해 백래쉬가 큰 상황에서 여성의당이 창당 준비 중입니다. 여성의당이 창당에 성공하면 한국 정당사에서 두 번째가 되는데요, 여성당 창당에 대해 여성단체 회장님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회장 하도 여성에 관심을 안 두니까 여성당을 만들어야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여성

당을 만들면 현 체제에서는 여성들이 마음이 합해져서 여기에다 투표를 하게 된다면 의석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여성당이 만들어지면 여성혐오도 드러날 거예요. 여성혐오는 우리가 남녀가 같이 사는 사회를 생각할 때는 남성혐오도 줄여야 되겠지만 여성혐오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양성평등당이라든가 아니면 성평등당이라든가 하는 건 어떨지.

하여튼 저는 잘 되기를 바라고, 여성의식이 늘어나는 건 좋고 여성이 단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소통을 해서 많은 여성들이 잘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너무 없어요. 선거제도 바뀐 지가 얼마 안되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천지예요. ‘이 여자들 또 뭐야 이거는’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빨리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야지.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뚝으면 뭔가 이슈가 되어가지고 여성들이 힘을 합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냥 흐지부지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모이니까. 어쨌든 마음에 들든 안들든 힘을 합쳐야 돼요. 욕을 먹든 말든 혐오문제는 차후의 문제로 해결해야하는 거고, 같이 하면서 또 남성도 회원이 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남성 히포쉬 부분을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남성도 같이 할거다 하며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찍을 당이 없대요. 여성의당에 찍을 수 있는 좋은 때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당들이 다 죽을 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찍을 당이 없을 때 여성의 당에 찍을 수가 있어요. 여성의당이 성공하면 다른 당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사회 🗣️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면담 중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

사회 🗣 대표님 반갑습니다. 21대 총선은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지는 처음 선거로서, 동시에 여성운동에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오늘 총선 국면에서 여연 대표님과 여성운동의 동향과 21대 총선에 대한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2016년 이후 페미니스트 운동이 부상하면서 한국사회 및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대표 🗣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여성혐오를

반대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2015년 IS로 간 김군이 ‘나는 페미니즘이 싫다’는 글을 남긴 이후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운동이 벌어지고,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운동, 메갈리아의 미러링 등 온라인에서의 여성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고 뜨거웠죠. 강남역 10번 출구 포스트잇은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문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혐오살인이다. 여자여서 죽었다’는 포스트잇이 10만장 가까이 붙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여성들은 여성혐오가 실제로 존재함을 자기 삶으로 증명해 보였고, 거리, 직장, 집 화장실, 모든 곳이 여성들에게는 강남역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구호는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였어요. 그리고 2017년 촛불 항쟁이 터졌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장에서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성들은 대단했어요. 페미존을 만들고 집회 과정에서 무대 발언들이 여성혐오와 여성인권침해를 하는 발언들을 항의하고, 매주 집회마다 성추행과 인권침해 발언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공지하게 만들었죠.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강남역 살해사건이후 수많은 온라인 영영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했죠. 이후 미투운동은 수많은 여성들의 분노와 연대의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미투운동은 기존의 여성운동단체와 영페미니스트, 영영페미니스트 등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연대한 운동이죠. 사실 우리사회는 권력형 성폭력, 성차별 피해 사례는 수없이 많았고 여성들은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미투 운동이 이렇게 폭발력을 갖는 것은 여기에 ‘검사마저도’ 불이익이 두려워 8년이나 성폭력을 공론화 할 수 없었던 명백한 성차별의 현실 때문에 폭발한거죠.

미투운동은 연극, 영화, 문단계 1인 권력의 폐해, 진보, 보수 진영을 막론한 위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의 현실은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화, 강간문화의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냈고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투 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로 이어진겁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2018년 미투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미투 운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함께 연대투쟁을 하기 위해 350여개 단체를 조직하고 미투운동의 흐름을 끈질기게 이어가며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2018년 3월 24~25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진행한 2018분의 말하기대회였어요. 정말 추운날씨였지만 1박2일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줄을 서서 광장에서 말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꽃샘추위로 정말 추운 날씨에 자신의 상처와 성폭력, 성차별의 이야기를 광장에서 드디어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한거죠. 그건 혁명이었어요.

2018년 6차례의 집회와 수많은 성명서, 기자회견에서 여성들은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 내자는 심정으로 투쟁했죠. 2019년 10여차례 페미시국광장에서 여성들은 소위 ‘장학선’ 사건으로 명명되는 권력형 성폭력의 제대로 된 해결을 요구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미투운동과 여성들의 분투는 법·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

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운택 연극 연출가의 유죄 확정 판결, 고은 시인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등 미투 법정투쟁에서의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여성연합은 미투로 촉발된 페미니즘의 물결을 개별 영역의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강간죄 개정과 관련 법제 정비, 선거제도, 검찰개혁, 성별임금격차와 채용성차별, 젠더불평등 해결을 위한 1인 1연금제 도입, 혐오대응 등 우리 사회전반에 대한 여성들의 총체적 개혁 요구로 확장해냈습니다. 한국사회는 백래시에도 불구하고 미투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사회적 변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 선거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그 내용과 효과 모두 현재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결과 측면에서 보자면 비례대표 의석의 증가도 지역구 여성 할당제도 모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선거제도가 여성 대표성에 어떤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대표 🗣 여성연합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 활동에 정말 열심히 참여했어요. 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지만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되었을 때 정말 기뻐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2019년 한국사회 개혁의 핵심 주제였죠. 여성연합이 연대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대국회 압박활동을 줄기차게 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었죠. 비록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혁안은 축소되었지만 50%의 연동률 도입,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이뤄진 것은 한걸음 앞으로 전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여성연합도 여성대표성 확대의 측면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젠더관계변동을 반영하면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비전을 담은 총선 젠더정책과제를 마련하는 등 성평등한 총선을 향한 준비를 진행했어요. 그동안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수적 대표성 담보, 정계입문의 중요한 통로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여성비례후보들이 젠더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여성비례대표로 선출된 여성의원들에게 무조건 젠더의제를 다루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은 17대 국회부터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이 50% 참여하면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현재 17%, 300명 중에 여성은 51명입니다. 정말 적죠.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는 법제화되어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지난 15년 동안 각 정당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어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면 여성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주 실망입니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3%, 미래통합당은 12%예요. 평균 10% 정도면 지난 19대 총선보다 적은 거죠.

사회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총선은 페미니스트 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그에 따른 여성운동의 지형이 상당히 변화한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21대 총선이 지니는 의미를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대표 ♣ 여성운동은 17%에 불과한 현행의 남성독점적 국회구조를 깨고 여성들의 정당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정치제도 개혁 활동을 진행했어요. 여성연합을 비롯하여 범여성계는 동수 국회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슬로건 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 지역구에서의 여성후보자 30% 할당제 의무 적용을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내기 위해 여성 1,000인 선언, 국회의원 면담, 전략회의 등을 진행했지만 실패했어요. 21대 총선에서 선거제도개혁이 정치개혁에 대한 민의를 외면한 정당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여성과 다양한 소수자의 국회 진출 확대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요구했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사회 ♣ 한국의 정치균열이 이제 지역에서 성별과 세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정치적 성향의 격차는 지역 간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 유권자의 관점에서 21대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표 ♣ 제21대 총선에서 젠더의제가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고 성평등담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성연합은 폭력, 노동, 복지, 건강,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여성연합 내외부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총선 젠더정책을 발굴했어요.

특히 이번 총선 젠더정책은 다양한 차별상황에 놓인 여성의 교차성을 고려하고 평등한 젠더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비전을 담았고, 21대 총선에서 각 후보자나 정당과의 정책협약, 공약점검 등 총선젠더정책이 적극 활용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권자 온라인 캠페인으로 총선 젠더정책과제 홍보, 다양한/성평등한 국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성폭력 관련 전과 혹은 가해이력이 있는 후보자/여성혐오 발언을 한 후보자 이력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유권자들의 선택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사회 🗣️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여성 의제가 매우 산적해있지만, 그 중 3개의 우선 과제를 꼽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표 🗣️ 20대 국회는 국회의석의 83%를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성애, 비장애인,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 이상 특정집단의 남성만이 대표되고 있죠. 이제 여성이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때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와 싸움, 연대를 통해 만들어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던 국회,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임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해결해야할 젠더의제로 여성연합은 5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여성정치대표성 확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강간죄 개정, 성별임금격차 해소,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사회 🗣️ 이러한 과제가 21대 국회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여성연합은 어떻게 총선에 개입하시고자 하는지, 전략과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 🗣️ 2020년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및 다양한 국회 구성을 위한 활동과 2019년에 마련한 젠더정책과제를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부와 회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 확대를 위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 홀수 추천 준수 감시 활동과 특히 지역구 공천에 여성이 최소 30%, 나아가 동수로 공천하도록 각 정당에 압력 활동을 진행했지만 잘 안되고 있어요. 성별을 비롯하여 연령, 계층, 정체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국회 구성과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각 정당의 공천 심사기준, 국회의원 후보의 성평등 의식 등을 점검 할 수 있는 대응활동 및 유권자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성차별·성폭력 해소를 위해 마련한 총선 젠더정책과제가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성평등 정책 변화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겠지요.

사회 🗣️ “여성의당”이 창당 과정에 있습니다. 여성의당이 창당한다면 대한민국 두 번째 여성당이 될 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대표 🗣️ 여성의당 창당 선언문을 보면 ‘여성시민과 함께 모두가 주인인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행동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20대 국회 83%,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00%, 기초자치단체장 97%, 광역의회의원 81%, 기초의회의원 69%가 남성입니다. ‘여성의당’은 남성중심의 독점정치에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반대하는 선언문은 여성연합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여성의당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성중심 정치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성 스스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운동의 과제입니다.

사회 🗣️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 기록 : 김태은 프리랜서
- 정리 : 이진옥 대표/ KWDI 실무진